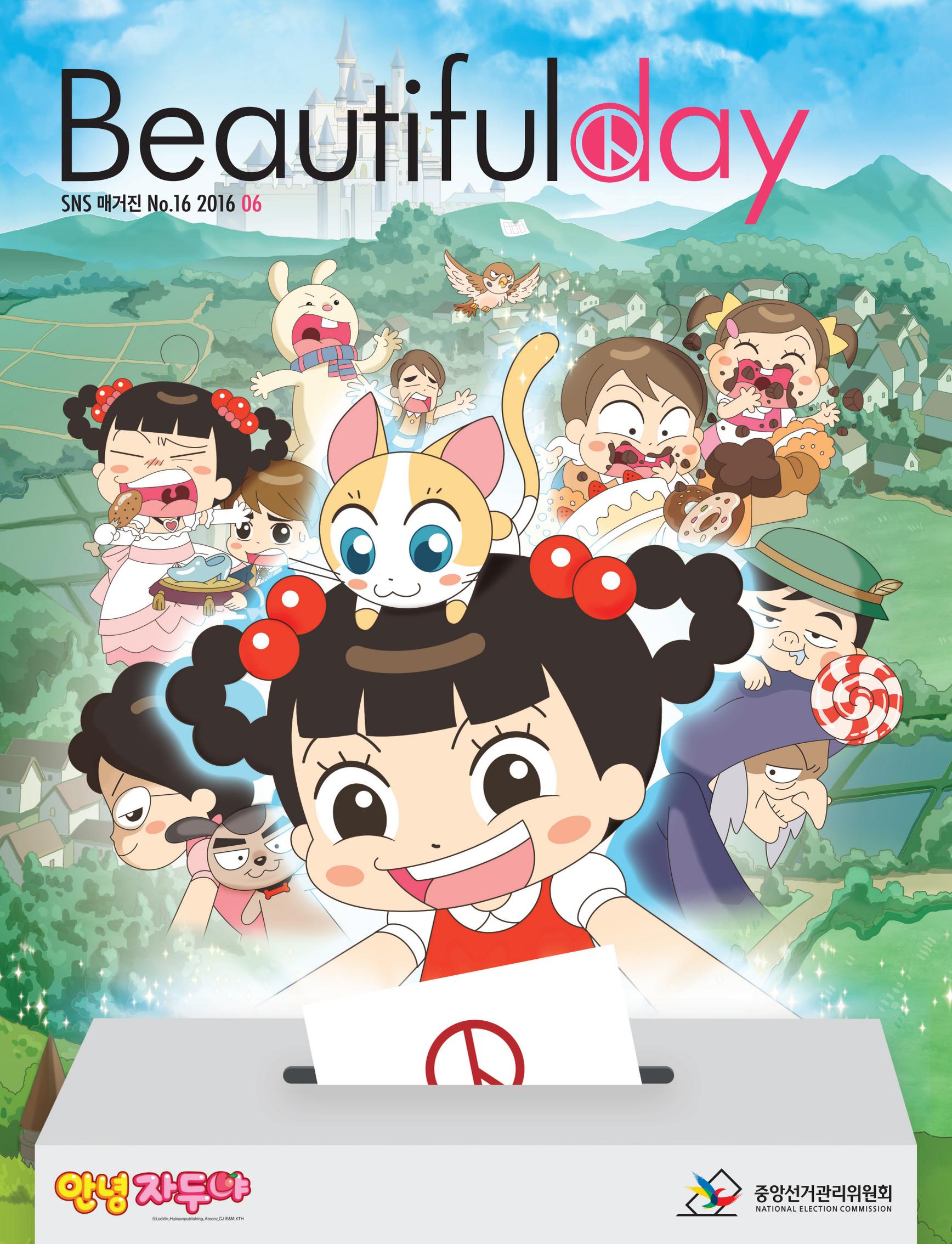


Beautiful day

SNS 매거진 No.16 2016 06



CONTENTS

<p>03 민주시민 홍보대사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 활약기</p> <p>04 카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모델 조보아 '유권자의 날'</p> <p>06 특별기고 제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 협치</p> <p>08 선거가 끝난 후 아름다운 패배자들</p> <p>09 맛있는 정치 정치의 음식, 칼국수</p> <p>10 영화 속 선거④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2016)></p> <p>12 유권자의 날 유권자의 날과 시민의식의 각성</p>	<p>14 웹툰 무대리와 함께 알아보는 성년의 날 이야기</p> <p>16 AWEB⑤ 어서와, 이런 선거 처음이지?</p> <p>18 역사 속 민주주의④ 백성의 소리 '격쟁'</p> <p>20 성년의 날 웹툰 선택</p> <p>22 시와 선거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1></p> <p>23 독자마당 덧글을 만나다</p>
--	---

- 발행일 | 2016. 06. 01 ●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작기획 | 미디어과 ● 구독문의 | 02-507-4351, ahj0824@korea.kr
- Beautifulday 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eautifulday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게시물 중 '읽고 불만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격월로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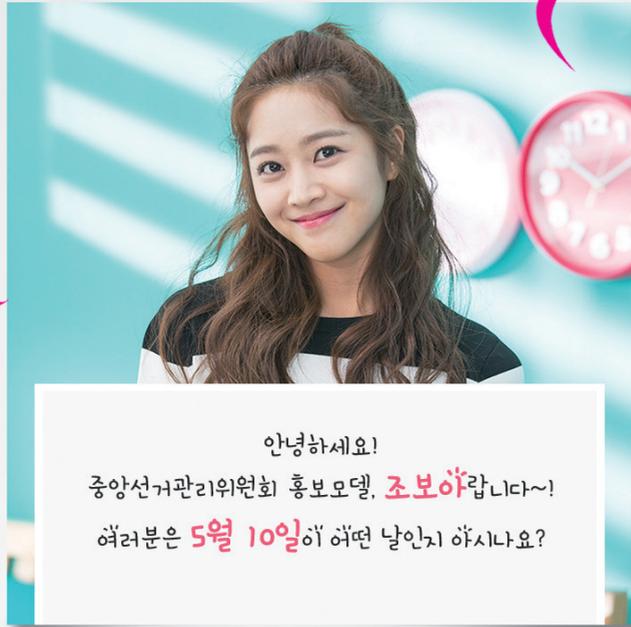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 깜찍발랄 최자두의 민주시민 홍보대사 활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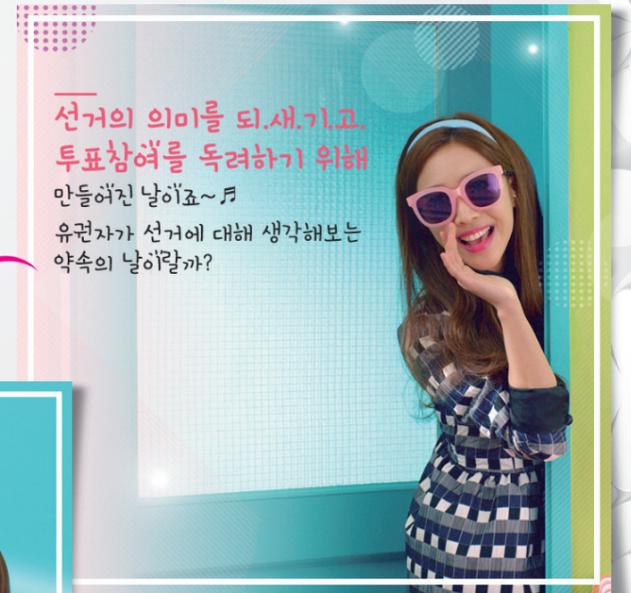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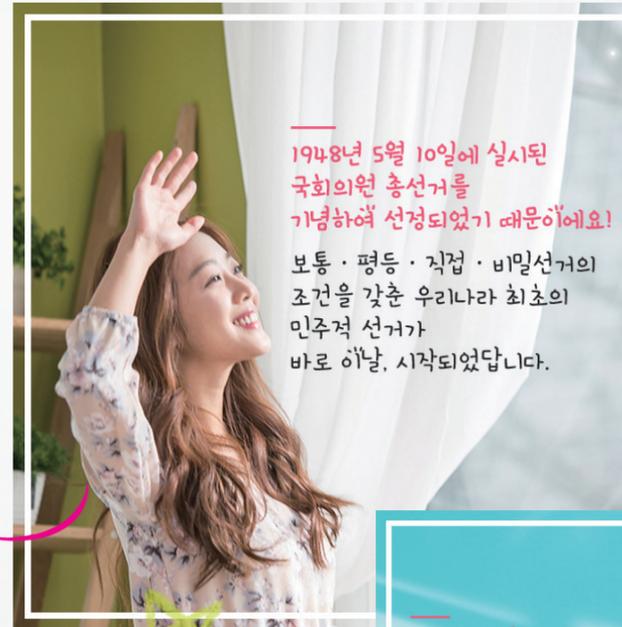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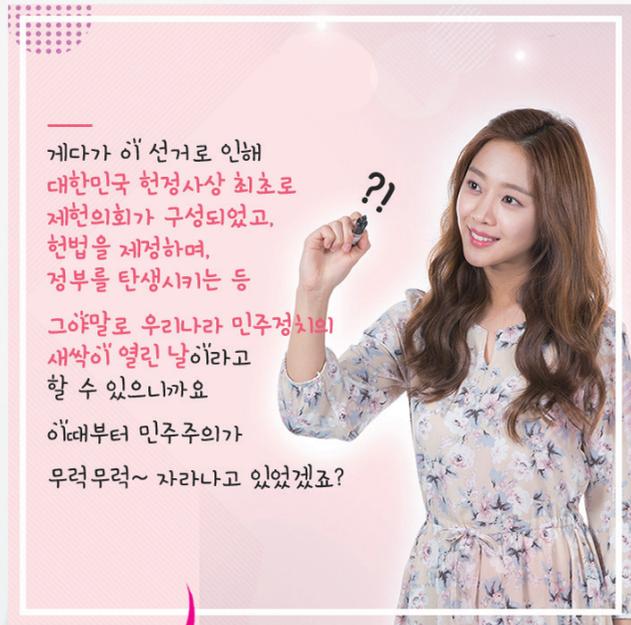
천방지축 귀여운 자두가 철이 들었어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시민 홍보대사로 중흥무진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자두의 활약상!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 자두야》는 1997년 9월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총24권째 만화로 발간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2016년 4월까지 SBS, 투니버스 (CJ E&M 방송사업부문), 아톤즈가 애니메이션으로 공동제작하여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지난 5월 4일에는 '극장판 안녕 자두야'가 개봉되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모델 조보아
5월 10일, 무슨 날일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갈등의 통합 조정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노사관계처럼 한정된 재화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이해 관계상의 충돌도 있고, 사형제 폐지 찬반, 간통죄 폐지 찬반처럼 가치관의 대립도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재화를 소모하게 한다. 갈등이 분쟁으로 격화되면서 의사결정에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며, 정신적 괴로움도 증가한다. 하지만 갈등에 이러한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대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로 향하게 하는 순기능도 크다. 결국, 우리는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갈등의 순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갈등은 격화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며, 결국 사회는 퇴보한다. 바로 이 사회적 능력이 정치다. 이해관계,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합리적 절차를 통해 토론하고 타협 절충해서,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나가는 과정, 이것이 정치다. 달리 말하자면 갈등을 조직하고, 서로 다른 해결책들을 정립해서, 대립된 해법 간의 경쟁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권력투쟁의 얼굴

그런데 정치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바로 권력투쟁의 얼굴이다. 모든

국민이 모든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소수 정치인에게 갈등의 통합 조정이라는 임무를 맡기되, 국민을 대신한 결정권이라는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대의제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모든 정치인은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 경쟁한다.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어야 그들이 대변하는 국민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더 많이 대변된다는 논리와 명분으로 서로 투쟁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을 통합 조정해서 결국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정치가 작동하는가, 아니면 권력투쟁 중심으로만 정치가 움직이는가의 문제이다.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이 둘은 하나로 결합하여야 옳다. 권력투쟁은 곧 갈등의 통합 조정과정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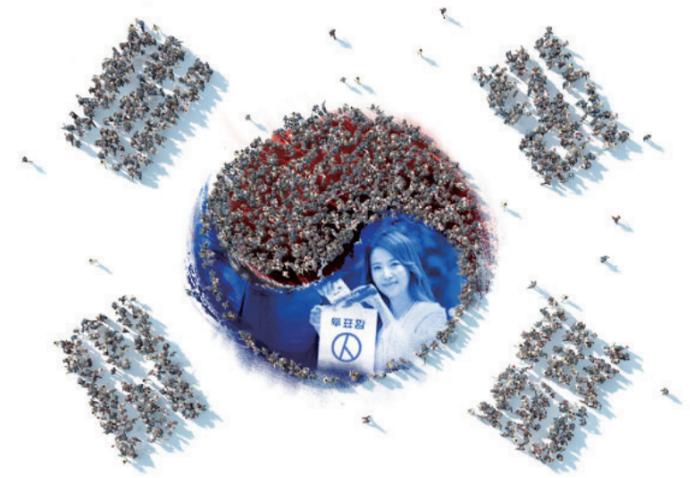
모든 정치인, 정당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순간부터 정치인, 정당만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자신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뜻과 이해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반대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일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 정치가 이렇게 작동하면 갈등은 더 커진다. 사회는 정체하거나 퇴보하고, 국민의 삶은 더 피해를진다.

민주주의의 숙명적 한계

이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숙명적 한계이다. 그래서 벨기에 태생의 문화사

학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라는 책에서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직접민주주의 시대 선거와 투표는 의사결정의 수단이었다. 달리 말해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소수 정치엘리트를 선출하는 수단이다. 그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부여하는 장치다. 그들이 다수 국민의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 기대는 왕왕 멈추고 만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도 이러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마땅치 않다. 레이브라우크는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추천을 통해 일정 정도 의회에 참여하는 예비뽑기식 대안을 내놓았다. 참신한 발상인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걸리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치가 잘 작동해야 갈등은 줄어들고 사회가 발전한다. 정치가 잘 작동하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또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선거다. 하지만 선거는 선거일 뿐 투표일이 지나고 나면 정치는 또다시 정치만의 리그, 그들의 권력투쟁으로 변질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정치가 잘 작동해야 갈등은 줄어들고 사회가 발전한다. 정치가 잘 작동하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또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선거다.”



답은 그래도 선거와 투표

지금까지의 답은 그래도 선거와 투표뿐이다. 선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 소수 정치엘리트들과 그들의 권력투쟁 방식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 또한 분명히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선거를 도입해야 한다. 몇 년에 한 번 대표를 뽑는 선거 말고도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투표, 국민투표 등을 더 폭넓게 도입해야 한다. 한번 뽑힌 사람들을 갈아치울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 같은 제도로 더욱 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묘사이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에서 중요 의사결정의 경우 주민투표, 국민투표를 더 빈번하게 실시하는 점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과 정당들이 그들만의 권력투쟁에 매몰될 수 없도록 전면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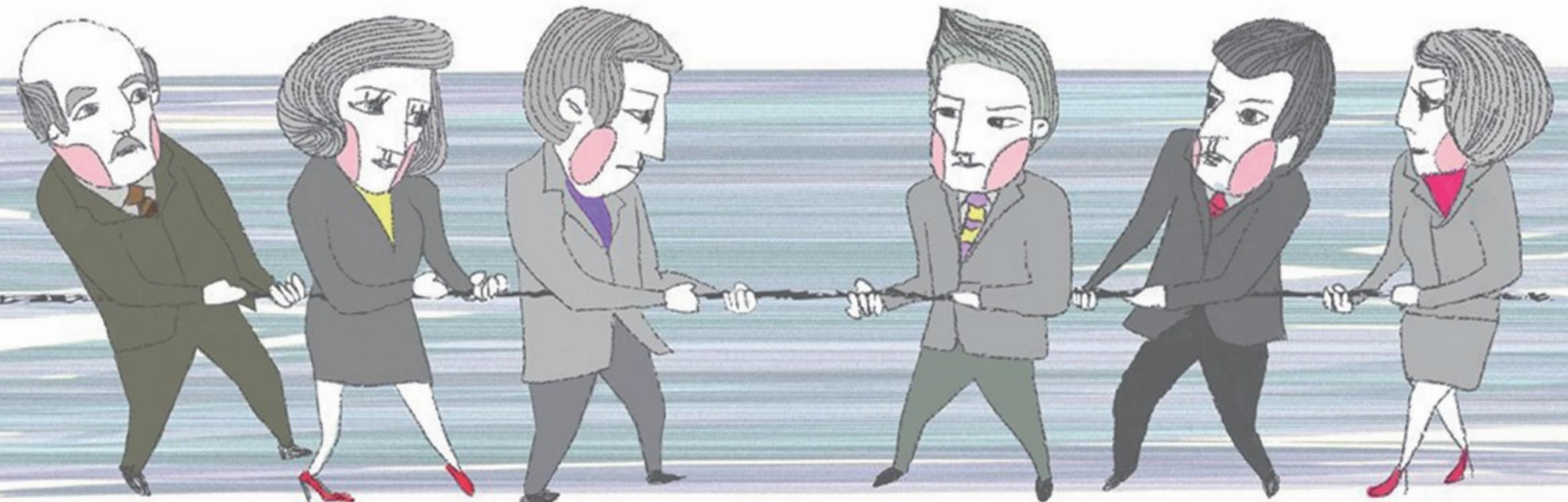
이번 4.13 총선 역시 국민의 위대한 힘이 정치권 전체를 강타했다. 그들만의 리그로 날을 지새우고, 선거구 획정과 공천과정에서 벌거벗은 권력투쟁의 온갖 추태를 보여준 여야 정치권 전체에게 달라지라고, 변화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지엄하다. 정치권이 거부할 수 없다. 여소야대, 3당 체제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구조 속에서 여야 정당들은 타협과 절충, 협치를 강요당하고 있다. 다시금 자기들만의 투쟁으로 날을 지새우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타협과 절충, 협치가 곧 갈등의 통합 조정기능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꼭 필요한 정치는 부족하고, 부차적인 정치는 과잉인 상태를 지속해 왔다. 갈등의 통합 조정이란 필요한 정치를 강화하고, 권력투쟁이란 부차적 정치를 줄여나가는 20대 국회, 국회와 정부 관계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4.13 총선이다. 그러기에 선거는, 국민의 투표는 여전히 아름답다. ㉞



글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시사평론가)





아름다운 패배자들

20대 총선이 끝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제 1당으로 올라섰다. 새누리당은 122석에 머물렀다. 국민의당이 38석으로 3당이 됐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다. 의회권력이 폭력이나 정변 없이 평화적으로 교체됐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여소야대만 아니다. △지역주의의 균열 △국민의당 호남 약진 등 유난히 할 말이 많은 선거다.

20대 당선자들은 5월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당선자 300명의 뒤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 패배한 644명의 낙선자가 존재한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 그들은 박수를 받아야 맞다. 유권자인 우리는 낙선자가, 패배자가 지금의 상황을 기꺼이 아름답게 받아들일수록 그를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it's time for me to go).”

2000년 미국 43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조지 W.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두고)다시 전화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어의 지지자들은 분루를 삼켰다. 전국 투표에서 고어는 부시에게 50만표를 앞섰다. 문제는 플로리다주 경선이었다. 투표용지의 도안이 고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미국을 혼돈으로 몰고 갈만한 위기를 정리한 것은 다름아닌 고어 자신이었다. 그는 직접 작성한 연설문에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천명하고, 부시에게 승복을 약속한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패한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이 패배를 인정하며 던진 “당파심이 애국심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말과 함께 “아무리 잃은 것이 많다고 해도 패배가 주는 가르침을 따라가면 영광의 날이 온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화려하게 재기했다. 그에게 대통령이 목표는 아니었다. 2007년 자신이 만든 ‘불편한 진실’이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고어는 승복의 상징이 됐다. 그는 이겼지만 졌고, 졌지만 이겼다.

승복의 문화는 우리들에게도 있었다.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난 (하지만 십수 년째 복귀를 바라

는 유권자가 상당한)고어와 달리, 우리에게는 승복의 감동으로 권력을 움켜쥔 패자도 있었다.

1992년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는 이번에도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로 시작하는 낙선 소감은 5년 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시작점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으로 떠났고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 뒤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DJP연합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한 것이다.

부산에서, 종로에서 다시 부산에서 낙선을 거듭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농부는 밭을 밟하지 않습니다”라는 낙선인사로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아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예고된 패배를 감행한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미안함’마저 느끼게 만들었다. 정치인이 승복을 통해 패배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2007년 한나라당 예비경선에서 접전 끝에 패배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승복연설에서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선거 본선 진출을 축하했다. 박 후보의 승복은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줬다. 본인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을 그대로 결집시켜 훗날 2012년 대선을 치러내는 밑거름으로 삼기도 했다.

이번 20대 선거를 다시 들여다보자. 낙선의 씩씩한 모습에는 두문불출만 있는 게 아니다. 남탓도 있다. 물론 낙선 뒤에도 아픔을 바로 털고 거리로 나서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20대 총선 낙선자도 있다. 강원지역의 한 낙선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출근길 인사와 재래시장 등을 돌며 낙선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낙선자는 아예 낙선사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인사를 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낙선자들이 낙선인사를 하며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는 이유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주는 신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를 계속 한다는 전제에서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과 다음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은 ‘납득하여 따름’이라는 뜻 이상이다. 패배자에게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을 찾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승복은 (예고된)승리의 다른 이름이다.

“당선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낙선인사다. 더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몰라도 낙선인사를 간곡하게 해 두어야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기억한다. 진심 어린 낙선 인사는 짝은 유권자는 더 안타깝게 여겨 뭉치게 하고, 안쪽은 유권자는 가혹하게 여겨 한번 더 생각하게 한다. 간혹 창피하다거나 배신감에 낙선인사를 하지 않으려는 후보가 있다. 그런 후보는 차제에 정치를 그만두는 게 좋다. 밭을 원망해서는 어차피 농사 못 짓는다.”(<보좌의 정치학> 중)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패배는 쓰라리다. 그래서 낙선인사는 더 아름답다. 모든 패배자들은 20대 총선을 함께 치러낸 동지들이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 🗳️

글 : 하어영 한겨레신문 기자

맛있는 정치를 부탁해 정치의 음식, 칼국수

한 국 정치판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음식을 들라 하면, 칼국수만 한 것이 없다. 특히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김영삼 대통령은 ‘칼국수 정치’를 하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어떤 특정 음식에 정치적 맥락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필요 음식은 정치적 그 무엇이 된다.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칼국수는 귀한 음식이었다. 밀이 귀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귀하었는지 ‘진가루’라 불렀다. 양반가 중에서도 방귀깨나 귀어야, 그것도 손님이 왔을 때나 칼국수를 밀었다.

한국전쟁 이후 밀가루 사정이 확 달라졌다. 미국의 잉여 밀가루가 값싸게 주어졌다. 그렇다고 당장에 칼국수가 서민의 음식으로 번지지는 못하였다. 여유가 없었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의 사람들은 밀가루로 반죽하고 흥두깨로 반대기를 만든 후에 접어서 칼로 썰어야 하는 정도의 여유도 없었다. 반죽하여 손으로 대충 뜯어서 국물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수제비이다.

‘국민 여동생’으로 살았던 최진실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수제비에 대한 이 정서를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최진실은 1968년, 가난의 시대 막바지에 태어났다. 그는 배우로 유명해졌지만,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추장 넣고 끓였던 수제비 이야기를 수시로 했다. 고추장수제비를 말하는 최진실에게 그 시절의 누이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진실이 ‘국민 여동생’으로 각인되는 데에는 이 수제비가 한몫하였다.

최진실이 태어난 다음 해인 1969년 박정희 정부는 혼분식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정해 강제하였다. 쌀을 아끼자는 절미운동은 일제강점기부터 있는 정책이었지만, 박정희 정부는 분식의 날을 정하면서 그 강도를 올린 것이다. 전국의 모든 식당에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분식을 팔게 했다. 가정에서도 이날에는 분식을 먹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이 싸가는 도 시락도 혼분식을 하였는지 점검하였다.



글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이때 박정희가 내민 혼분식 대표 음식이 칼국수였다. 당시 언론은 박정희가 육영수 여사가 해주는 칼국수를 먹는다고 수시로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에는 칼국수 조리법이 때때로 실렸으며, 식품영양학자들이 나서서 칼국수는 건강에 좋고 전통적이며 맛있는 음식이라는 관념을 국민의 머리에 각인시켰다.

그 당시 많은 한국인은 최진실처럼 수제비를 먹고 있었을 것인데, 박정희가 혼분식의 대표 음식으로 수제비를 버리고 칼국수를 선택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미국에서 들여온 값싼 남은 농산물로 조리한 음식일망정 대통령의 음식이니 근본도 없어 보이고 때깔도 나지 않는 수제비를 먹는다는 것은 권위가 서지 않는 일이라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 밀가루 반죽을 흥두깨로 밀고 칼질을 하면 때깔이 그런대로 살아 ‘요리’처럼 보인다는 데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는 느낌이 왔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칼국수는 정치의 음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칼국수의 상징처럼 거론되는, 서울의 명동과 성북동에 있는 두 칼국수집은 분식의 날이 제정되던 1969년에 개업을 하였다. 이 두 식당은 조선 양반가의 전통이 그 칼국수에 담겨 있는 듯이 소문을 냈다. 성북동은 경상도식 건진국수 전통을 따랐다 했고, 명동은 충청도식 제물국수 전통이라 주장하였다. 이 두 칼국수집은 개업하자마자 정치인의 단골 식당이 되었다. 당시엔 여야 관계없이 분식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명색이 정치인이니 서민과는 그 격이 다른, 그러니까 전통이라 할 만한 ‘국물’이라도 담



겨 있을 법한 칼국수를 먹으려 했다. 김영삼의 칼국수 정치도 그 맥락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민인 듯도 싶고 서민이 아닌 듯도 싶게 칼국수를 먹었다.

1970년대 칼국수는 여접집 여자이면 마땅히 하여야 하는 전통음식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당시 혼기를 앞두고거나 신혼에 있는 처자에게 “어떤 음식을 잘하세요?” 하고 물으면 수줍게 “칼국수”라고 대답하곤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이때 서민의 칼국수가 서서히 자리를 잡았다. 소형 칼국수 기계가 등장하고 멸치, 북어 등 값싼 육수 재료가 공급되면서 자장면 가격에 맞서는 칼국수가 번져나갈 수 있었다. 분식집 칼국수, 재래시장 칼국수는 1980년대에 들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국밥이나 어묵, 붕어빵, 잔치국수까지는 흔히 먹는데 시장 칼국수는 잘 먹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때로는 서민인 듯, 때로는 서민이 아닌 듯하게 보여줄 정치의 음식으로 칼국수를 남겨두고 싶은 것이 아닌지도 싶다. 그래서인지 고급인 전통의 칼국수를 내는 식당에는 여전히 그 오랜 정치인들이 들락거린다.

“왕이나 거지나 하루 세끼 먹는 것은 같다.” 너나없이 없이 살 때는 빈곤한 밥상 앞에서 스스로 위무하기 위해 이런 말을 곧잘 했다. 시대가 바뀌었다. 같은 음식이라도 그 질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안다. “우리 모두 칼국수를 먹지 않나요?” 하는 정도로는 ‘왕’과 ‘거지’를 동질화할 수 없다. 정치는 나누기이고, 정치인이 얼마나 평등하게 잘 나누는지 시민은 늘 감시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귀찮아도, 민주 공화정은 원래 그런 것이다. 🗳️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2016)>

우리는 좀 더 신나게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이하 <시빌워>)는 전국 누적 관객 800만 명을 기록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들 매우 사랑해 온 한국 관객에게 <시빌 워>가 사랑받는 건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이 영화에는 캡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이언맨도 있고, 그 외 여러 슈퍼히어로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어벤져스 2.5>나 다름없는 캐스팅까지 갖추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파이더맨'이 나온다.

'스파이더맨'은 이미 여러 편의 영화로 관객과 만났다. 2명의 주연배우가 거쳐 갔고, 곧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렇게 익숙한 캐릭터이지만, <시빌 워>가 어느 10대 소년의 뒷모습으로 스파이더맨을 처음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뉴욕 퀸즈에서 메이 숙모와 함께 살아가며 숙제를 걱정하는 피터 파커의 모습이 어딘가 아련하게 다가온 덕분이다. 한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야 할까. 스파이더맨은 바뀌거나 사라진 게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스파이더맨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시빌 워>에서 스파이더맨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모두 극찬하는 공황 결투 장면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직 철부지 아이나 다름없는 스파이더맨은 어른들 틈에서 싸우는 내내 입을 가만두지 않는다. 상대방의 무기에 놀라워하고, TV와 신문에서만 보던 슈퍼히어로들과 한 팀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자신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재미를 느낀다. 스파이더맨의 존재감 덕분에 이 장면은 단지 슈퍼히어로들이 서로 싸운다는 설정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어른들의 싸움에 끼여든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활약. 공황 결투 장면을 가장 신나게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시빌 워>의 슈퍼히어로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와 대결한다. 슈퍼히어로들은 그동안 수많은 빌런과 싸우며 지구를 구했지만, 사실 그들이 벌이는 싸움은 곧 인간들에게 재난이었다. 워싱턴 DC와 뉴욕, 소코비치 등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시빌 워>에서 처음 언급된다. 그리고 UN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국가들은 어벤져스 대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소코비치 협정'을 계획한다. 토니 스타크를 중심으로 한 슈퍼히어로들은 어벤져스를 지키기 위해 협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그 협정 하에 이루어진 시스템이 어긋날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협정을 반대한다. 외부의 입김에 의해 굳건하던 어벤져스가 팀 아이언맨 대 팀 캡틴 아메리카로 나뉘는 것이다. '정치적'이라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그로 인한 분열, 또 그로 인한 대립. 우리가 현실에서 보던 '정치'와 <시빌 워>속의 정치는 속성상 다른 게 없다.

그런데 10대 소년인 스파이더맨이 지금 이러한 정치적 대립에 끼여든 것이다. <시빌 워>의 이야기를 담은 원작코믹스에서도 스파이더맨은 매우 중요한 '조커'로 등장한다. 처음 스파이더맨은 슈퍼히어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토니 스타크와 한 팀을 이룬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는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동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팀 아이언맨과 대립하고, 그의 새로운 선택은 이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세상에 정치적이지만 싸움은 없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대립한다면, 그게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시빌 워>의 스파이더맨은 투표권을 이제 막 가진 당신이나, 곧 가지게 될 당신에게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흥분으로 가득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정치적이지만 싸움은 없다

물론 영화 <시빌 워>는 이러한 정치적인 대립과 함께 슈퍼히어로들 개개인의 사연에 주목하면서 정치 드라마보다는 휴먼 드라마적인 감정을 강조한다. 영화 스스로 정치적인 맥락으로만 강조되는걸, 두려워한 것이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입장에서 볼 때, <시빌 워>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다. 어느 조직이든 100% 완전 무결한 단계란 있을 수가 없다. 또 그렇게 내부적인 대립을 통해 조직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정부의 제안에 저항하는 존재가 그토록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싶어 했던 캡틴 아메리카라는 사실도 흥미롭지 않은가? 10대의 피터 파커에게 이날의 정치적인 행동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어떤 목적으로든 일단 스파이더맨은 선택을 했고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 그 선택은 이후 그에게 생겨날 신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이 싸움의 무대가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어린 슈퍼히어로들은 어디서 어린 것이 어른들 싸움에 끼어드느냐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정치인 외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왜 정치적인 것으로 끌고 가느냐"며 비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이까지 어리면 그 비난은 두 배가 된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자신의 발언을 조심스러워 하게 되었고, 주변인의 정치적인 행동을 불편하게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정치적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쓸데 있는 분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세상에 정치적이지만 싸움은 없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대립한다면, 그게 정치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시빌 워>의 스파이더맨은 투표권을 이제 막 가진 당신이나, 곧 가지게 될 당신에게 '정치적'인 것이 얼마나 흥분으로 가득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스파이더맨에게는 '거미줄'이 있고, 당신에게는 '투표권'이 있다. 그것이 당신이 정치적인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무기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신나게 정치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글 :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허핑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의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외부 필진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투표권과 유권자의 날

우리에게 다행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일이 있다. 전 국민에게 투표권이 그냥 주어졌다는 점이다. 투표권을 얻어내기 위해 희생을 치르지 않았어도 됐다는 점에선 다행한 일이지만,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무뎠다는 점에선 아쉬운 일이다.

유권자의 날을 아는 사람이 드문 것도 이런 배경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들 알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맞춘 스승의 날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5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사이엔 유권자의 날이 있다. 만약 이날이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투표권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널리 기억됐을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권자의 날은 별로 중요한 날로 여겨지지 않고, 투표권 또한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어차피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드라마틱한 역사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런 역사가 있다면야 시민적 각성이 크게 일어났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투표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백을 교육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투표권의 의미를 무겁게 되새기는 시민정신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시민적 교육의 계기가 되는 날이 바로 유권자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를 통해 제헌 의회가 구성됐고,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최초의 총선일인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을 크게 기념해서, 시민혁명의 공백으로 인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유권자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피의 투표권

서양에선 프랑스대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그 이후에도 모든 성인 국민이 투표권을 갖게 되기까지

는 기나긴 희생의 역사가 필요했다. 미국에선 1965년에 참정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의 행진을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에선 여성의 투표권을 요구한 사람이 단두대에서 처형되기도 했고, 영국에선 여왕이 관람하는 경마경기장에 여성투표권을 요구하며 뛰어든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마치 생래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처럼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엔 고무신 정도의 선물에 투표권을 팔아넘기기도 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투표했던 것이다. 온갖 명목의 모임을 통해 향응과 현금 봉투가 제공되기도 했다. 한국 유권자의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의 에피소드다.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던 시절을 지나 직선제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서구 시민혁명과 비슷한 시민적 열기가 분출하기도 했다. 이때 거의 한풀이 수준의 정치적 관심이 나타나 주요 대권 주자의 유세장엔 백만여 명의 청중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은 이내 사라졌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지지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은 금방 무기력해졌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좌절이 컸다. 투표하든 안하든 어차피 권력자는 그 나뭇에 그 밥이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냉소를 하게 됐다. 그리하여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급기야 선거일을 단순한 휴일 정도로만 여기게 됐다. 점점 하락하는 젊은이들의 투표율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예까지 이르렀다.

투표를 안 하는 것 못지않게 ‘묻지마’로 투표하는 지역주의도 문제였다. 지역당에서 공천만 하면 허수아비라도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묻지마 투표나 투표 포기나 오십보백보다. 투표를 안 하는 유권자도, 묻지마로 투표하는 유권자도 무시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날은 이런 시민의식의 풍경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귀찮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정말 귀찮은 제도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그냥 두지 않는다. 시민은 시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공화국의 주권과 참정권을 가진 사람이 시민이다. 과거 왕정 시절엔 왕에게 주권과 참정권이 있었는데, 이젠 모든 국민이 주권과 참정권을 나눠 가진 시민이 되었다.



“정치가 더럽다고 참정권을 포기하면 정치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항상 정치에 대해 고민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다. 유권자의 날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해 고민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다. 유권자의 날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엔 그동안 그렇게 하락하던 청년층 투표율이 다항히 살짝 올랐다. 지역주의의 철옹성도 조금은 무너지는 징후를 보였다. 이것을 출발삼아 앞으로 더욱 큰 유권자의 각성이 나타나야 한다. 유권자가 눈을 붙을 켜고 감시하고 참여할 때, 바로 그때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하는 날이 될 것이다. 유권자가 유권자의 권리를 스스로 귀하게 여겨야 감히 누구도 그것을 우습게 보지 못한다. ㉞



글: 하재근 문화평론가



무대리와 함께 알아보는 성년의 날 이야기

강주배

성년의 날 !!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



무대리와 함께하는 성년의 날과 생애 첫 투표



강주배



한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선거참관단 편 어서 와, 이런 선거 처음이지?

국제참관단, 우리의 선거를 경험하다

25개국 선거관계자 53명, 7개 국제기구 12명 총 65명으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참관단의 선거참관이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 사전투표 및 투·개표 모의 체험, 서울국제선거포럼, 선거역사박물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방문 그리고 사전투표 및 투·개표 참관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일정이었다.

이동하는 버스에서는 한국의 교육,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음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A-WEB 직원들이 이들에게서 한국을 배울 정도이니, 참관단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선거일인 4월 13일엔 온 종일 비가 내렸다. 국제참관단은 우비를 입고 투표소 주변을 계속 배회하였다. 참관단 중 누군가가 물었다. 투표소 밖에서 선거인에게 계속 질문하는 이들이 누구냐고. 안내자가 답하기 전 참관단 중 다른 한 명이 빠르게 답했다. 그들은 출구조사를 하는 이들이라고.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묻는 것

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례를 들려 진지하게 대화하는 참관단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한국의 선거를 깊이 이해하고, 모두와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었다.

참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 까다롭게 진행되었던 자료 번역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번역한 자료를 참관단이 온전히 읽고 이해해줄 수 있을까. 결국 현장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 소용없지 않을까. 그러나 참관단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한 사전투표관리 및 투·개표 관리 매뉴얼 덕분에 한국 특유의 사전투표와 투·개표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물었을 때도 매뉴얼에 모든 답이 있어 자신들은 물어볼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에서는 선거관리를 위해 다양한 매뉴얼과 자료를 만들고 있음을 알려주고, 실제 투·개표 과정에서 쓰이는 서식들을 번역하여 보여줌으로써 한국 선거를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 자료를 가져가 각국의 선거발전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했던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참관단의 준비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에 대비하는



“ 제도의 양상이 다를지언정 IT를 선거관리에 도입해서 편리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같을 것이다.



것에서 출발한다.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친절하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고유의 선거제도에 맞추어 사전투표와 투·개표절차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IT를 도입한 선거관리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보이고, 각 단계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 이번 참관단 운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와 달리 사전투표 및 투·개표 모의체험과정을 포함하였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시연하고, 각 단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선진 정치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

전 세계의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공정성 분야에서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선진 정치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당당할 줄 알아야 하며,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자. 쉽고도 간단한 말. 그러나 그 어느 때고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제참관단을 운영하면서 생각했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같은 고민에 처해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을지언정 IT를 선거관리에 도입해서 편리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같을 것이다. 그들은 비가 오는 4월 13일 새벽 5시에 투표



개시 참관을 위해 출발하여 투표관리관의 개시 선언 한마디 한마디까지 온전히 알고 싶어 했고 오전 6시에 투표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감동하였다. 저녁식사를 거르고 투표함 이송을 함께하고, 다음날 오전 토론일정에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워 개표과정을 지켜보며,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함께했다는 것에 뿌듯해하는 것은 운영단의 노력의 결과이며, 참관단의 진심어린 참관의 결실이다. 사전투표 및 투·개표 체험을 통해 각 단계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여 최종 브리핑에서 그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들은 자국 선거관리에 IT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길 원한다고 하였다. 실현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여도 선거발전을 위한 자국제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재단의 팀 마이스버거 국장은 한국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믿을 수 있는 선거를 구현하였고, 자신이 본 선거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였다고 전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창설 50주년을 맞이했고 선진 선거문화를 위해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국제선거참관단 운영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계기로 우리 모두 더 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노력은 전 세계 어느 기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스스로의 노력에 보다 당당해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드높아 지길 바란다. 국제사회에서 선거 한류를 넘어 하나의 기념비이자 기준이 되는 날을 감히 꿈꿔본다.

글을 빌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참관단 운영을 지원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린다. 특히 바쁜 선거 일정과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관을 아낌없이 도와주신 일선 위원회 직원 분들과 투표관리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⑤



글 : 고유나(세계선거기관협의회(A_WEB)연수참관팀)



권력이 듣기 싫어했던 백성의 소리 ‘격쟁’

조선시대, 군주와 백성의 소통수단

조선 전기 꾸준히 이어오던 신문고 제도는 폭군 연산군 대에 이르러 폐지된다. 신하들에게 “허는 몸을 자르는 칼이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라는 경구를 목에 걸고 다니게 했을 만큼 언로(言路)를 단았던 연산군이니 ‘어린 백성’이 억울하담시고 대궐 앞에서 북을 울려 대는 풍경을 참아 줄 수 없었으리라. 후일 영조 대에 이르러 신문고를 부활했지만 잘 운용되지 않았고 영조 임금 51년, 즉 영조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영조는 신문고를 함부로 치지 말라는 명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좀 기구하다. 북을 관리하던 관리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북 치는 사람을 통제하는 정황이 포착돼 벌을 내렸는데 이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신문고를 울려대는 바람에 임금부터 “시끄러워 못 살겠다.” 불평이 튀어나왔던 것이다. 이렇듯 신문고는 절차도 까다로웠고 관리도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통제나 조작, 또는 관리의 장난질이 개입되기 쉬웠다.

상언(上言)과 격쟁(擊鎗)

조선 시대 백성들이 군주와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있었다. 바로 상언(上言)과 격쟁(擊鎗)이었다. 상언은 백성이 임금에게 글월을 올린다

는 뜻으로 규정에 의하면 한문으로 쓰인 문서의 형태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상소(上疏)와 다른 점이라면 상소는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의견 개진이었다면 상언은 개인적인 억울함이나 민원을 주제로 한다는 점이겠다. 하지만 한문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일반 백성에게는 또 하나의 벽이었다. 상언할 기회조차 없던 백성들은 임금이 거동하는 길거리에서 팽과리나 북을 쳐서 임금에게 자신의 사연을 직접 전하게 했으니 이것이 격쟁이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성종 임금 대에서부터 이 단어가 등장하며 ‘속대전’ 편찬 이후 합법화된다. 하지만 격쟁 사례, 즉 백성이 임금의 어가 앞에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일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세조 임금은 만성 피부병에 시달렸다. 그래서 온천 거동이 잦았는데 하루는 온양 온천으로 행차하던 중 천안 삼거리에서 한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듣는다. 한 여인이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울고 있었다. 사람을 보내 사연을 물으니 권세 있는 신하의 일이라 임금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계유정난 공신의 횡포와 격쟁

결국 세조가 나섰다.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에 세조 임금은 그만 대경

실색하고 말았다. 여인은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권세를 잡았던 계유정난의 공신인 홍윤성의 숙모였다. 그는 조카 홍윤성이 자신의 남편을 죽여 마당에 묻었다고 울부짖었다. 홍윤성이 가난하던 시절 수십 년을 돌보아 주었던 숙부였다. 그 숙부가 청탁을 하러 찾아가자 대가로 땅 스무 마지기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분개한 숙부가 호통을 치자 그에 죽여 버리고 마당에 파묻었다는 것이다. 여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세조는 기가 막혔으나 공신 홍성윤을 벌하지는 못하고 애꿎은 하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렇듯 왕에게 직접 나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전하는 행동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더욱 잦아진다. 격쟁의 경우 그 사연 내용에 관계없이 공장을 치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격쟁인 경우 장 100대에 3천 리 밖 유형에 처한다는 으스스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격쟁은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억울한 사연도 많았고 또 백성들의 의식도 높아졌음을 뜻할 것이다.

정조, 상언과 격쟁을 소통의 수단으로

이 격쟁 제도를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소통 수단으로 가장 잘 활용했던 임금은 역시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 정조였다. 정조 임금은 재위 기간에 총 3천355건의 상언이나 격쟁을 처리하였고 다른 임금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로서 상언과 격쟁의 내용이 다양했다. 격쟁 내용에 가해지던 제한을 철폐하여 하층민들의 호소를 보다 쉽게 만든 것도 정조였다.

살곶이 다리, 오늘날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다리를 지나던 중 한 열한 살 소년의 격쟁을 듣는다. 소년은 “돈을 사사roi 주조했다는 죄로 유배가 있는 아버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라고 호소했고 임금은 “네 행동을 보고 사정을 들으니 불쌍하고 가엾다. 조정에서 마땅히 처분할 것이니 돌아가 기다리라.”라고 화답한다. 거등을 마치고 돌아온 정조는 즉시 해당 관서에 이를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격쟁에는 횡수의 제한도 없어서 같은 사정을 두고 계속 격쟁할 수 있었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기가 어려운 것

이를 악용한 것이 이안목이라는 이였다. 그는 절박하지도 않은 산의 소유권 문제를 두고 3년에 일곱 번이나 임금의 행차에 격쟁의 팽과리를 울렸던 것이다. 이런 물의에도 불구하고 정조 임금은 격쟁을 통한 민의 수렴을 포기하려 들지 않았던 바 이를 통해 흑산도 사람 김이수의 전설 같은 실화가 탄생한다.



<혈의 누>라는 영화가 있었다. 섬사람들 전체가 종이 공물에 시달리던 섬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것이었는데 바로 흑산도가 그랬다. 흑산도는 과거 닥나무가 자란다는 이유로 종이를 상납하는 부역을 감당해야 했는데 사실상 닥나무가 멸종한 뒤에도 그 부담은 사라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던 것이다. 관가에 진정도 해 보고 감영에도 찾아가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흑산도 사람 김이수는 배를 타고 물으로 나와 다시 한양으로 상경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은 비단 왕조 국가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음을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정조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는다. 지금도 배를 타고 두 시간을 달려야 닿는 그 먼 거리를 마다않고 임금에게 호소하겠다는 일념으로 한양 땅을 찾은 김이수는 마침내 흑산 도민의 염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지금도 김이수의 후손들이 흑산도에 살고 있으며 흑산 도민들은 김이수의 용기를 치하하여 흑산도 주변의 작은 섬을 통째로 김이수의 가문에 주었다고 한다. 즉 그 섬의 생산물에 대한 독점권을 준 것이다. 김이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를 한양 길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은 비단 왕조 국가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살

고 있음을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임금과 집권자들은 신문고를 설치하고 격쟁을 허용하면서도 특하면 팽과리를 치고 삼감마마를 부르짖는 백성들의 아우성에도 질색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귀를 열어놓겠다고 장담하면서도 백성들의 입을 막을 궁리가 횡행했다. 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일수록, 그리고 또 나라가 융성하거나 회생하던 무렵일수록 상언과 격쟁이 가장 활발하게 행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바로 그것이 소통의 힘이고 백성들의 권리의식의 성장이고 이를 통해 나라 전체에 생기가 들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흑산도 사람 김이수의 말처럼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기가 어려운 것”이기에, 상언과 격쟁의 이야기는 비단 군주제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 주장이 제한되고 ‘알아서 침묵’하거나 공권력이 그 입을 틀어막는 사회라면 어찌 연산군의 시대와 다름이 있겠는가. ㉔

필진 김형민 PD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이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산하의 오역’이란 제목으로 역사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모은 글을 엮어 ‘그들이 살았던 오늘’의 제목으로 책을 냈다. 현재 sbcsnbc에서 PD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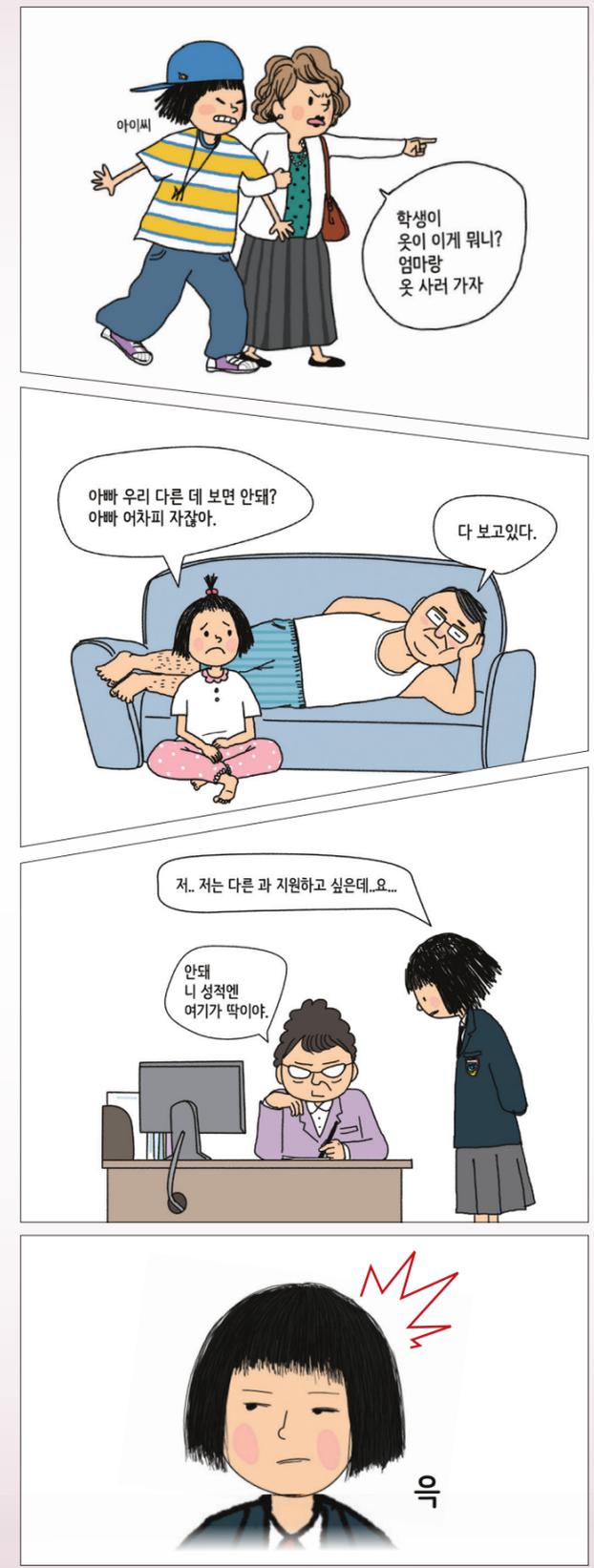
선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글·그림 에원작가

이게 나야.



난 어릴때부터
모든일에 선택권이
없었어.



휴 가 떠나는 국무총리는 서 울역 삼등대합실 앞에 줄 서서 표를 사고, 석양 질 무렵 대통령은 제 딸 손을 붙잡고 칫솔을 사러 나온다. 광부들의 작업복 주머니에는 철학자, 작가들의 책이 꽂혀 있고, 다 대학 나온 농민들은 새와 꽃, 지휘자 이름은 흔히 알아도 대통령 이름은 잘 모른다. 어떤 무기도 들어올 수 없다고 제 농토를 지키는 국민이 있는 이 나라에서 어린이들은 전쟁 놀이 따윈 하지 않는다.

태평성대였다는 요순시대의 고사가 떠오르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다. 실존하는 곳은 아니고 한 시인의 바람 속에 있던 나라다. 신동엽 시인(1930-1969)이 50여 년 전 38세에 남긴 시 '산문시 1' 내용 일부를 조잡하게 풀어 써본 것이다. 정치인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충분한 교육과 문화생활을 누리며,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모두가 반대하는 나라, 꿈결 같은 곳이다.

시인은 '스칸디나비아'라며 북유럽의 지명으로 시를 시작하지만, 내용은 실재와 무관한 자신의 바람으로 채웠다.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는 세상보다 한참 느린 것 같지만, 실은 훌쩍 앞서 있다. 정치도 가끔은 시를 닮아야 할 때가 있다.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상상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피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헤밍웨이 장자(莊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대합실 매표구 앞을 띄약벌 흡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 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곤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두 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히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知性)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능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기지도 탱크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나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 1>



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춤 사색뿐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꿈무늬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 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 '산문시 1' 전문 -

선거와 투표의 목적

생활이 각박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절박한 곳에서 이상은 비현실적이라며 비웃음 당하기 쉽지만, 4월 총선이 끝난 지금이야말로 이상향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 4월 총선이 끝나고, 뒤늦게 불만이 밀려왔다. 소중한 한 표를 던진 시민들의 삶을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청사진과 그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는 정치를 선거 전에도, 투표가 끝난 지금에도 찾기 어려워서다. '정책이 없다'는 건 한국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고질적인 비판이지만, 지난 4월 총선 과정이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 드라마가 전면으로 나선 시간이었다. 언론은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과 일거수일투족을 스토리로 만들어 내보내기 바빴다. 선거기간 동안

대부분 정치인도 정치의 핵심인 정책과 공약보다 '껍데기' 영역의 정치, 자기들끼리의 정파, 당파 싸움, 당선을 위한 당선에 부끄러움 없이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 당 대표와 간부 등 정치인 이름은 신물 나게 봤는데, 투표로 당선된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변할까 생각하니 물음표만 그려졌다.

정치인들이 남발한 공약이 당선되면 '空空'이 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모두가 아는데, 이번처럼 투표 전에도 구체적인 공약을 두고 논쟁하는 자리가 주목받지 못한 경우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다.

위에 소개한 '산문시 1'을 쓴 신동엽 시인의 대표작은 교과서에도 수록된 '껍데기는 가라'이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시의 첫 구절이다. 여기서 4월은 1960년 4·19 혁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 표를 얻어 만들어진 국회 역시 '정치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게 되길 바란다. 시민들 또한 한 표를 행사한 선거 이후로도 꼭 정치인들의 행보와 공약을 서술 퍼렇게 지켜보며 매일 다음 투표를 준비하자. 대통령 이름조차 몰라도 충분히 행복할 때가 언젠가 오기까지, 우리들의 자세는 그래야 할 것이다. ☺

글 : 김여란 **전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유리감성



유권자의 날 잘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을 믿어야 해요!!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투투



유권자의 날이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앞으로 올바른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겠어요~~ 5월 10일의 비밀 잘 봤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권리 그리고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넘나좋은것



4월도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선거에서도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은 남고 지키지 못할 공약들은 가길 바랍니다^^. 정치를 가심처럼 소비하는 불성실한 유권자, 투표철에만 바짝 관심 갖는 저도 반성해야겠습니다.

최국주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민주사회,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으려면 스스로가 민주시민이 되어야겠죠. 저 역시도요. 민주시민으로 갑시다!!

살아있네



아, 잘 봤어요 보통작가님의 만화 느낌이 있어 좋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만화로 보니까 좋네요^^. 더 의미 있는 유권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힐링이필요해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저에게 주어진 투표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소중한 투표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준이



성년이 되신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유권자가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성년의 날을 재치 있게 알려주셔서 웃으며 읽었네요^^.

체리



너무 쉽게 주어져서 아쉽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네요.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투표권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지호지우맘



소식을 통해 오늘이 '유권자의 날'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지수



정치적인 것이 같듯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자세로 인식되길 바라요~

꼬꼬닭꼬꼬



비슷한 꽃이지만 다름이 있듯 정치도 정치인도 비슷하지만 다른 본질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사진이 정말 살아있네요~ 좋은 사진, 정보 감사드려요!

엄마의정원



유권자의 날 절대 잊지 않겠어요^^. 우리의 권리는 누가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투표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겠죠.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